

송년특집  
기묘년 한해를 보내며(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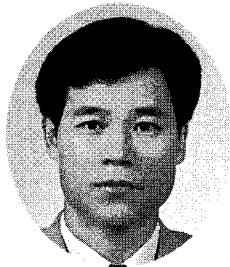


'99

농산물

# 안전성조사 어떠했나?

'농산물 관리 강화·농업인의식 향상'으로 안전성 높아져  
'업체류 농약사용' 관계기관과 협의, 안전농산물 공급해야



유 평 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WTO체제 출범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점차 확대됨으로써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다.

농림부는 농업인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96. 8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안전성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품질관리차원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는 불량식품 단속 차원에서 수입농산물을 포함한 유통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처별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한 금년도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 송년특집 기묘년 한해를 보내며(Ⅲ)



## 농산물의 안전성관리

국내산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시책은 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인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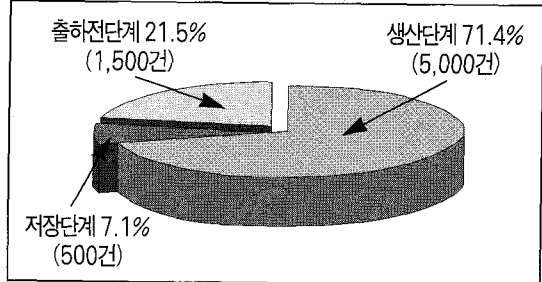
저장단계 및 출하단계의 농산물에 대해 품질관리 차원에서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가 실시하는 안전성조사와 시장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 불량식품 단속차원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가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 안전성조사 계획 대폭 확대

금년도의 안전성조사계획 물량은 지난해 1만6백건보다 대폭 확대한 2만7천건(정밀분석 7천건, 속성분석 2만건)으로 조사단계별 정밀분석 물량은 <표1>과 같다. 특히, '98년도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들깨잎, 상추, 취나물 등 25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표2>하여 시·도별 안전성조사계획 수

립시 조사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등 안전성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표 1. 조사단계별 정밀분석 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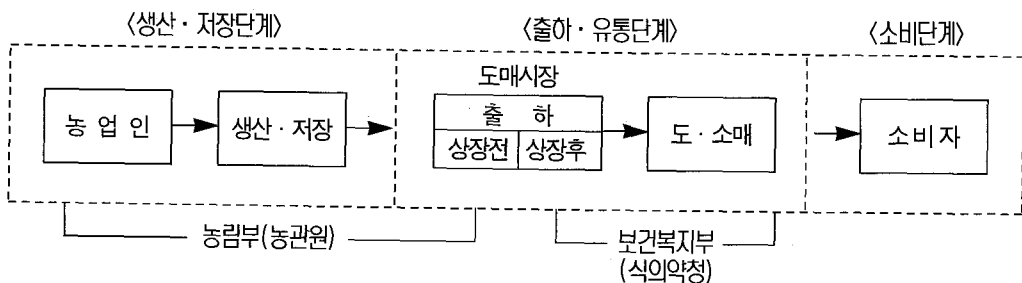


### 안전 농산물 출하 유도

9월말 현재 1백6개 품목(채소류 69, 과실류 14, 곡류 9, 기타 버섯류 등 14), 2만2천5백72건(생산단계 2만1천85, 저장 2백74, 출하 1천2백80)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품은 3백61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폐기(92건), 용도전환(22건), 출하연기 등(2백47건)의 조치<표3>를 취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출하되도록 하였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품에서 주로 검출되는 농약성분을 보면 클로르피리포스, 카보후란, EPN, 카벤다짐, 치아벤다졸, 클로로타로닐,

### 안전성조사 업무영역



○ 농림부(농관원)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 보건복지부(식의약청) : 식품위생법 제17조

※ 가락시장의 경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에서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 실시(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표 2. 중점관리대상 품목**

구분	채 소 류(21)	과실류(2)	기 타(2)
생산·출하 단계	들깨잎, 상추, 썩갓, 신립초, 케일, 취나물, 부추, 쪽파, 시금치, 근대, 아욱, 얼갈이배추, 머위, 참나물, 미나리, 콩나물, 풋고추, 파리고추, 딸기, 오이, 열무	포도, 복숭아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표 3. 부적합품목 및 조치내역**

구분	부적합 품목 및 건수	조치내역
1~9월	들깨잎 113, 상추 34, 열무 33, 콩나물 30, 취나물 20, 썩갓 16, 풋고추 12, 머위 8, 시금치 8, 근대 6, 미른고추 6, 복숭아 6, 미나리 5, 부추 5, 얼갈이배추 5, 일반배추 5, 오이 4, 쪽파 4, 고생지무 3, 대파 3, 양미나리 3, 포도 3, 감귤 2, 딸기 2, 매실 2, 아욱 2, 참다래 2, 청경채 2, 치커리 2, 토마토 2, 풋마늘 2, 홍고추 2, 가지 1, 겨자채 1, 파리고추 1, 메론 1, 방울토마토 1, 엔디브 1, 영지버섯 1, 참나물 1, 파슬리 1 (41품목 361건)	○ 폐기92 ○ 용도전환22 ○ 출하연기 160 ○ 현장계도등 87 (고발 2건) ※ 고발 : 콩나물

**표 4. 부적합 농약성분별 건수**

구분	부적합 농약 성분별 건수
농약 (33성분, 361건)	클로르피리포스 134, 카보후란 47, EPN 23, 카벤다짐 18, 치아벤다졸 17, 클로르타로닐 14, 디클로르보스 11, 치람 10, 에토프로포스 10, 다이아지논 10, 메소밀 9, 엔도살판 8, 메치다치온 7, 만코지브 5, 델타메스린 5, 클로르피리포스메칠 4, 비펜스린 4, 피라조포스 3, 페니트로치온 3, 캄탄 3, 파리미포스메칠 2, 프로시마돈 2, 치오파네이트메칠 2, 웨나리올 1, 포사론 1, 펜토에이트 1, 펜발라레이트 1, 트리아조포스 1, 에다펜포스 1, 싸이퍼메스린 1, 빈크로졸린 1, 베노밀 1, 메치오카브 1

디클로르보스, 치람, 에토프로포스, 다이아지논 등(표4)이다. 이들 농약성분에 의한 부적합건수는 전체 3백61건중 81.4%인 2백94건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안전성조사 결과는 부적합우려가 높은 지역 등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안전성조사 대상에 포함·조사하게 되어 우리 농산물의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실태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국내산 농산물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성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품 비율이 지난해 9월말 5.7%에서 금년 9월말에는 2.5%로 많이 감소되었다.

미국의 경우 FDA가 '98년도에 실시한 안전성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자국내 농산물 중 채소류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품 비율은 1.4%이고 수입농산물은 3.6%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국내산 농산물 안전성 확보실태가 아직은 선진국보다 미흡한 수준이지만 점차 향상되고 있다. 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안전성조사 물량 확대 및 부적합품 시장 출하 사전 차단 등 안전성조사 강화 조치와 함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가락시장 반입농산물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품 반입금지 등으로 부적합농산물이 설 곳이 없어진데다 농약안전사용교육 등을 통해 농업인들 또한 농

약안전사용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작물별 '농약안전사용기준' 반드시 지켜야**

농작물 재배시 농약을 사용할 때에는 안전성과 상품성을 다같이 중요시하여 내가 먹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농작물별로 정해진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낮은 성분의 농약을 살포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엽채류는 농약이 부착되는 면적이 넓어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농약살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관계기관에 수시 문의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공급 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요망된다. **농약정보**